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2133-5260
해외정책교류팀장	최정혜	2133-5270
담 당 자	김세민	2133-528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수출사업단 팀장	김건우	734-345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요청받아..협력사업 논의한다

- 폴란드 바르샤바 개최 국제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사업 논의 진행
- 시,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전후 경제복구, 인프라, 도시운영 거버넌스 등 협력 요청
- 서울시, 전쟁 후 단계별 도시개발 경험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재건 모델 협력

- 서울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5.22~23)에서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도시 인프라 재건사업 협력을 제안받았다.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일상의 교통수단 복원,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 손꼽힌다.
-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하여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3국의 중앙, 지방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단·중·장기간 우선순위 사업과 시범사업 선정하기 위한 협력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 서울시에서는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시는 전쟁 후 단계별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① 전쟁 후 도시사회 경제 복구, ② 대중교통, 산업시설, 디지털시민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③ 전후 개선된 도시운영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정립에 대한 경험 공유를 약속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17일(수),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대통령 영부인을 서울시청에서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전후 복구 지원, 문화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서울시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력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키이우시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의 야간버스 노선최적화 모델(올빼미버스)을 동일하게 키이우시에 적용해 데이터기반 교통개선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키이우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2022년 초에는 세계은행 재원으로 수도 키이우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SUSA)이 시행을 준비해 오던 가운데 우-러 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사업재개를 준비 중이다.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은 시의 성공적 도시운영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해외도시의 공유 요청이 증가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외교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2015년 설치된 전담조직이다

- 시는 이번 국제컨퍼런스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국회 안드리이 니콜라이 엔코 의원과 이르핀시, 부차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시장단으로부터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시민 삶의 복원을 위해 도시개발 경험과 협력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 향후 서울시는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도시의 일상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 상암 DMC, 마곡스마트시티 등 지역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수도 키이우에 친환경 중심의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등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사업모델을 제안하기로 하고, 3국간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 한국과 협력해 재건에 참여할 예정으로, 국제컨퍼런스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바르샤바 결의안을 발표했다.

- 조혜정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은 “도시와 시민 삶의 복원을 위해 서울시의 도시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도시경제, 일상회복, 시민네트워크를 복원해 재건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컨퍼런스 현장 사진

붙임 :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컨퍼런스 현장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수출사업단 관계자(신동훈 책임)가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에게 우크라이나 국회 관계자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